

**설 교**

# 인생의 그림자

<열왕기하 20:8~11>



**김 충 락 목사** (사카이교회)

우리는 지난 3년여간 코로나로 인한 멈춤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관객도 없는 상태에서 올림픽도 치루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 다. 학교도 문을 닫았고, 상점들도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병문안을 갈 수도 없었고, 사랑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서로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라는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대면으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함께 신앙을 공유하던 신앙공동체에게 이제 비대면이라는 말이 익숙해졌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달려왔던 것이 이제는 비대면이라는 말과 함께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오롯이 지켜내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은 있었습니다. 예기치않게 찾아온 이 멈춤의 시간동안 열심히 성경일 읽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온라인이라는 문명의 이기(利器)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성경을 통하여 신앙을 나눌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 다.

우리가 지난 3년여간 멈추어 있던 것처럼 느꼈듯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시간이 멈추고 태양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이 되었고, 그로부터 6년 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함락을 목격했습니다. 동포의 멸망을 바라보는 그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 것이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 때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도입한 우상의 역사를 과감히 끊어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의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왕하 18:5-6)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때 그의 나이 39세였으며 아직 아들 므낫세도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이 젊은 왕이 병이 난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정치,외교적 고통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열왕기하 18:13-37을 통해 보자면, 히스기야는 앗수르 왕 산헤립에게 엄청난 돈과 보물, 심지어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 주어야 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랍사게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을 조롱하며 모욕했습니다.

이 때 히스기야는 그 모든 조롱을 침묵으로 견뎌냅니다. 백성에게 ‘잠잠하고 한 마디도 대답하지 말고’ 이 고통을 넘기도록 지시했습니다. 마치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 모욕을 당할 때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런 고통을 당한 히스기야는 그만 몸져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간은 멈추어졌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네가 삼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십오 년을 더할 것이며” (왕하 20:5-6)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가던 태양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내리셨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힘과 욕심을 다해 달려가던 인생에서 우리의 그림자를 조용히 바라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25세에 왕위에 올라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던 히스기야는 여러 국제정세에 의해 닥쳐온 위기 앞에서 쓰러져, 앗수르 왕 산헤립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왕하 19:16)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행편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나를 위협하는 것들을 제발 막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속에서 해가 멈춘 일은 두 번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히스기야의 해시계가 멈추었습니다. 그 그림자를 통해 인생의 그림자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것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전 세계를 하나님은 한 순간에 멈추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각 교회는 예배 후 식사교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배 이외의 모임, 성경공부, 친교모임들도 하나 둘씩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년간 생명을 연장받고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고 성안으로 물을 끌어들이었습니다. 적에게 포위된다 하더라도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땅 밑으로 500m가 넘는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춤이 멈춤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멈춤에 익숙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격려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며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사 41:13)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제 그 힘을 통하여 새로이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KCCJ

# 인권심포지움 개최

## 「함께 사는 생명의 장막을 펼치자」 주제로

지난 9월 18일, 대면방식으로는 4년만에 KCCJ 인권심포지움이 사회위원회, RAIK, KCC, 서남KCC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주제는 <함께 사는 생명의 장막을 펼치자!>, 부제는 <역사를 마주하는 이민사회의 선교과제를 생각하다>였다. 개회는 오전 9시, 이근수 사회위원장의 설교가 있는 후에 강사들과 한국에서 온 원용철 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과 박영락 부장이 소개되었다.

일정이 상당히 빡빡해서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30분까지 4가지의 발제(①입법법개악의 문제, ②청년선교의 과제, ③관동대지진 학살 100년의 역사, ④공무원 취직시의 국적조항철폐운동)와 사시기 19장의 성서연구의 발제가 있었다.

강사는 각각 ①은 사토 노부유키 RAIK고문, ②는 오사카교회의 양양일 장로, ③은 김성제 NCCJ총간사, ④는 요코하마 신애숙의 오오이시 후미오씨 등 4명이었다. 각각의 발제는 발제자의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깊은 내용의 이야기였다. 또한 성서연구는 박영자 관서지방회 회장이 담당해 설교에 잘 쓰지 않는 어려운 사시기 19장을 가지고 여성의 시점에서 연구발표를 했다. 마지막으로 폐회예배는 나카에 요이치 총회장이 “생명의 나무에 접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우는 기회가 된 집회였다.

(보고 : 사회위원장 이근수목사)



신도위원회

# 전국 성경강연 캐러밴 실시

## 서남지방회부터 시작

신도위원회 주최 ‘전국성경강연 캐러밴’ 이 9월 10일 서남지방(장소 : 후쿠오카교회)을 시작으로 출발하였다.

서남지방 성경강연회 강사로는 총회장 나카에 요이치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했다. ‘생명나무와 연결되어’ (요15 : 3~11)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의미를 배우며, 자신이 존귀한 생명/인생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자각하고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웃을 마주하고 서로를 도와주며 살아가는 사명을 발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의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제 불황과 사회적 변질이 심한 시대이기에 이웃 교회들 간의 연대를 도모하고 과감한 조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연회 종료 후에는 참가자 간 교류회가 진행되었으며, 후쿠오카현 내 여러 교회를 비롯해 벳푸, 구마모토에서도 목사, 장로, 신도들이 많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이번 강연회 개최는 장소인 후쿠오카교회의 지원과 서남지방회, 여성회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오는 11월 5일에는 간사이 지방에서도 ‘약함을 힘으로! 함께 사는 교회를 향하여!’ 를 주제로 교도교회에서 개최된다. 이 성경강연회는 11월 30일에도 오사카교회에서도 예정되어 있다.

(보고 : 신도위원장 양양일장로)



관동지역협의회

# 찬양과 말씀의 밤 개최

## 13교회가 모여 4년만에 은혜시간 가져

관동지방교회여성연합회 주최의 「2023찬양과 말씀의 밤」 이 지난 9월17일 (일) 오후 4시부터 동경교회에서 13교회에서 약210명의 참가로 개최되었다.

1부 개회예배는 김근식목사 (한사랑교회·관동지방교회여성부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어」 (시편146 : 1, 147 : 1) 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다.

2부 찬양의 밤이 시작되어 13교회가 각각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발표가 있기까지 배병주집사(가와사키교회)의 특별찬양이 있었고, 우수상에 요코하마교회, 노력상에 가와사키교회, 인기상에 후나바시교회가 수상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3년간 개최될 수 없었던 찬양과 말씀에 밤이, 더욱이 동경교회에서 개최되었고, 13교회의 참여가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가득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가교회는 品川、한사랑、東京、東京聖山、横浜、西新井、東京東部、船橋、川崎、横須賀、東京希望、東京中央、즈쿠바東京 (이 상13교회) 였다.

(보고:서기 이민례)



관서지방회

# 어린이 캠프, 포도 따기

## 4년전에 기획, 코로나를 넘어 개최

관서지방회 교육부 주최로, 2023년 9월 23일(토)에 어린이 캠프·포도따기가 오사카부 돈다바야시의 사바-팔에서 실시했다.

4년 전에 기획한 이래 태풍과 코로나화의 영향으로 중지되었다. 그 점을 생각하여 이번 테마를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여... 만남으로·연결하여·함께 해본다!」 라로 정해, 특별 강사의 시미즈 노조미 선생님을 초대해 프로그램을 세워 개최되었다. 개회 예배에 이시바시 마리에전도사의 사회와 말씀, 기도에 김혜심 장로, 아이스 브레이크에 요시이 히데오 장로가 담당해, 각자의 명찰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9개의 교회 소개가 있었고, 즐거운 찬양과 율동으로 몸을 움직였다. 점심은, 교회·가족 단위로 활동하게 되어, 넓은 부지에서 자유롭게 노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오후 순서는 시미즈 선생님의 진행에 따라 포도원에서 포도를 맘껏 먹을 수 있는 상황속에서도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적힌 스티커를 열심히 찾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공작실에서는 포도의 열쇠 고리를 만들었고 포도밭에서 모은 스티커로 성령의 열매의 답을 찾으며 감상을 공유한 뜻깊은 하루, 자연 속에서 좋은 날씨에도 축복받은 하루였다. 2살 아이로부터 68세의 목사까지 폭넓은 세대의 48명이 하나가 되어, 매우 즐겁고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교육부장의 폐회기도와 내년 다시 만날 약속을 나누어 현장에서 해산하였다. (보고:박애선목사)



# 한일 Youth 평화 포럼 실시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주제로 개최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한일화해와 평화 플랫폼이 주최하는 제2회 한일 유스 평화 포럼이 열렸다. 개최지는 일본과 한국을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도쿄에서 많은 청년들이 모였다. 포럼에서는, 한일의 역사를 직시하고 기억을 공유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양국의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 교류하고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참가자들은 청년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학생부터 사회인까지, 문화와 종교, 신조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나의 동세대가, 적극적으로 시민 활동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새롭고 놀랍기도 했다. 또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평화를 위해 배우고 계속하는 모습을 보고, 사회에 대한 관여 방식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을 다시 질문하게 되는 귀중한 경험이었다.

많은 배움 중에서 하나인 나의 인상에 남은 것은, 가와사키 교회가 있는 가와사키시의 필드 워크였다. 재일 코리안에 대한 무심한 헤이트 스피치가 여전히 격렬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민족을 넘어서 초등학생들이 김치를 담그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누가복음 17: 21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엿본 것 같았다.

(보고 : 오사카교회 한선영전도사)



#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그리스도인 추모 집회 재일대한 동경교회에서 열려

지난 2023년 9월 3일 주일 오후 4시, '관동대지진 조선인·조선족 학살 100년 기독교인 추모집회'가 동경교회에서 열렸다.

캐톨릭교회를 포함한 일본의 여러 그리스도교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추모집회는 한국에서도 참가자가 있어 일본어와 한국어(번역본) 식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참가자를 합하여 약 200여 명이 참가했다.

1923년 9월 1일, 100년 전 대지진으로 자연재해와는 별개로 유언비어를 확인도 없이 사실로 인정한 군대와 관원, 그리고 민간인 자경단에 의해 6000명 이상의 조선인(또 700명 이상의 중국인)이 학살되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설교자로 김종수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는 '디아스포라들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 (이사야 51: 11)를 전했다.

이번 추모집회를 통해 관동대지진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100년 전 학살의 두려움으로 도망치던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가?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학살을 추모하는 집회를 진행하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는가 하는 것이다.

'땅의 소금, 세상의 빛' 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관동대학살의 역사를 직시하고 추모하는 일을 계승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전쟁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시대에 적대감과 차별이 만들어내는 폭력에 침묵하지 않고, 진리의 화해와 평화를 이끄시는 주님을 따르는 증인으로서 '지극히 작은 자' (마태 25: 40)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선교의 길을 걸어갈 것, 그리고 우리는 침묵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소수자를 배제하는 사회의 모습에 맞서 싸울 것을 선언했다.



# 金載鐵, 谷麻理장로 장립식 거행 陸順子 권사 취임식도 겸하여



金載鐵長老



谷麻理長老

지난 8월 27일 주일 오후, 동경동부교회에서는 김재철, 타니 마리(谷麻理)장로의 장립식과 육순자(陸順子) 권사 취임식이 관동지방회 각 교회에서 많은 교우이 참석한 가운데 당회장 정유성목사의 사회로 성대히 거행되었다.

예배 설교는 이명충목사(요코하마교회)가 "봉사에 적합한 사람" (엡4: 11-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이어진 장립식은 관동지방회장 김용소목사의 사식으로 진행되어 서약과 안수기도 및 선포로 이어졌다.

이어서 거행된 육순자(陸順子) 권사 취임식은 당회장 정유성목사의 사식으로 취임 서약과 선포로 이어졌다.

이번에 동경동부교회 시무 장로로 세움을 받은 김재철 장로는 1969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2009년부터 본교회 집사로 섬겨왔으며, 타니 마리 장로는 1973년 일본에서 출생하여 2015년부터 본교회 집사로 섬겨왔다.

## 姫路薬水教会 牧師 請聘 案内

在日大韓基督教会 姫路薬水教会では担任牧師を招聘いたします。

- ・在日大韓基督教会所属の牧師で、韓国語と日本語の説教のできる方
- ・2023年10月末まで連絡してください。
- ・連絡先：臨時堂会長 韓世一牧師 ☎090-1907-2613、E-mail : zosua2002@gmail.com

##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 B6版変型・1483ページ
-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 ※お求めは總會事務所へ

## 講壇掛・ストール販売



在日大韓基督教会ではKCCJのロゴ入り講壇掛・ストールを制作・販売しています。価格は講壇掛・ストール共4色セットで各1万円(約半額) 講壇掛・ストール両方ご購入の場合は1万5千円です。※お求めは總會事務所へ

특별연재  
최종

# 1923학살의 기억과 십자가 신앙 (8)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을 맞이하며—

김성제 (일본기독교협의회 총간사)

<8> Genocide(대량학살) : 역사기록, 기억, 그리고 선교책임



관동 조선인 대학살 (Genocide)은 우리에게 역사와 기억에 대해 물어본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학살 희생자의 시신을 국가정책으로 하천에 버리고, 썩어서 일괄 소각, 또 유족들의 발굽을 막기 위해 시체를 파내어 트럭으로 반송하여 처분하면서 철저히 숨기기를 도모했다. 그러나 그

래도 육해군과 내무성 경보국의 기록문서, 지역행정사 기록문서, 그리고 수많은 계엄군 병사를 비롯하여 작가의 수필, 시민의 일기와 아동들의 작문과 그림에 남겨진 증언이라는 역사 기록을 일본 정부는 어둠에 묻을 수는 없었다.

역사연구가 山田昭次(야마다 아키지)는 관동조선인 학살의 역사 연구에서 국가 책임과 민중 책임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책임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우리 앞에 서있는 과제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 국가와 인간이라면서 그러한 학살을 자행하였는가? 그리고 그 책임의 진상과 소재의 규명을 어렵게 하는, 일본이라는 나라 사람들의 역사의 기억을 형성하는 사고방식 근저에 있는 사상적인 배경과 그 역사의 기억이 지금의 일본에 있는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해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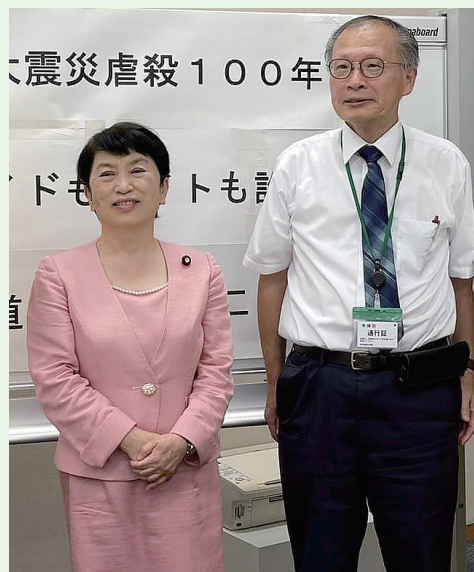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남은 역사의 기록과 증언을 단서로, 끝없는 공포와 고통과 슬픔 속에서 무명의 죽음을 이룬 사람들과 그 유족에 대해, 만약 그것이 자신이자 자신의 부모이자 아내이자 형제 자매라면, 하고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인간이라면서 어떻게 거기까지 포학해질 수 있는 인간의 마음 속의 적대심, 차별, 그리고 공포심이 도착하는 파괴적인 힘을 숨긴 마음의 어둠에 대해서, 또 인간의 학살의 광기와 동시에 무감동적 방관이라는 무작위, 이 사실에 대한 금기시와 침묵이라는 인간 정신의 근원에 대해 다시 묻는 것. 게다가 이 역사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불문에 부침으로 인하여 인간은 무엇을 부수고 잃어 가게 될지에 대해 상상력을 일으켜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나누는 것.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과 사회는 어떻게 이런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않게 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일본의 폐전 이듬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北森嘉蔵, 1946年)이라는 신학서가 저술되었다. 나중에 신학자 칼 바르트는

자신의 저서 『복음주의 신학 입문』의 서문에서 이 신학서에 대해 접해, 그 학문적인 깊이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신학이 <일본적 신학>을 지향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큰 물음표를 붙이겠다고 말해 '세계 교회적으로 타당한 신학'을 지향하는 것의 의의를 지적했다. 만약 그렇게 기록한 발트 옆에 조선인 신학자가 있었다면, 그·그녀는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의 저자는 그것을 구상할 때 그 신학을 사색하는 주체의 마음에 식민지 지배 가운데 천황을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강요당해 조선민족임을 버리고 황국신민이 되는 것을 강요받고 독립을 요구하는 자는 '不逞鮮人 토벌·섬멸'의 대상이 된 역사, 더우기 관동 대지진 조선인 대학살의 지옥과 같은 현실과 그 숨겨진 역사를 보고계신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라고 발트가 말하는 '세계 교회'라는 말에 포함된 의미를 말할 것임에 틀림없다.

즉, '일본적 시야' 속에서 누락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또 거기서 일본을 다시 보는 모습이다. 지금도 이 일본에게 묻는, 식민지주의란, 바꿔 말하면 그 눈빛을 상실한 '일본적 시야'인 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관동 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100년째의 지금, 다시 일본의 기독교회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책임과 민중 책임 ... 그러나 지금 하나, 우리는, 韓·日·在日의 기독교회의 에큐메니컬적인 선교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것은 100년 전, 학살의 광기에서 도망치는 조선인에 대해 기독교회는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역사 망각 속에 묻혀 가고 있는 생명을 상기시켜 주님 앞에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화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戰前'이라고 불리며 전쟁을 향해 대군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 앞으로의 일본에서 적의와 헤이트가 낡는 포학으로부터 생명과 인권을 방어하는 피난소로서 교회가 주님의 역사에 이용되도록, 우리의 신앙고백과 선교의 장막을 다시 펼치는 길이다.



도쿄국제포럼에서 행해진 「제100주년 관동대지진재 한국인 피살자 추념식」에 참석한 후쿠시마 미즈호 시민당당수와 필자